

말라리아 환자 가이드

의료기관용

확인



발열환자 진료 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

-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 거주나 방문력 확인
- 해외 말라리아 유행국가 및 지역 등 확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콜센터 1339 확인

검사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RDT) 검사 실시(추정진단)



확인검사*(현미경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반드시 실시

- * 확인검사 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 의뢰(043-719-8525), 검체안전운송시스템을 통해 송부 (현) 녹십자 랩셀 수거(1566-0131)
- * 의료기관 자체 확인검사 하더라도 완치조사 위해 확인검사 의뢰방법과 동일하게 질병관리본부에 혈액검체 송부

신고



신속진단검사 양성시 지체없이 감염병 발생신고(의사환자)



확인진단검사 양성 시 지체없이 감염병 발생(환자) 및 병원체 신고

* 감염병통합관리정보지원시스템 <http://is1.cdc.go.kr>

치료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클로로퀸 3일과 프리마퀸 14일 처방(용량 확인)

* 프리마퀸 투여 전 G6PD검사 실시



해외유입 말라리아: 해당국가의 항말라리아제 내성확인 후 치료제 선택

* 2019년 말라리아 진료가이드 참조

설명



말라리아 위험국가 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안내



항말라리아약 복용 철저 및 약 복용 중 구토 등 부작용 의심 시 진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 모기기피제, 모기향, 밝은색 긴팔과 긴바지 착용 등



치료 완료 1개월 후 보건소에서 완치조사 받도록 안내



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문의사항 |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연락

말라리아 개요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라리아는 열원충(<i>Plasmodium</i>) 속 원충(삼일열, 열대열, 사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감염 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3군 법정감염병 ICD-10 B50, B51, B52, B53, B54
원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lasmodium vivax</i> (삼일열말라리아), <i>Plasmodium falciparum</i> (열대열말라리아), <i>Plasmodium malariae</i> (사일열말라리아), <i>Plasmodium ovale</i> (난형열말라리아)
감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룩날개모기속(<i>Anopheles</i>)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 * (국내) 총 6종의 얼룩날개모기종에서 말라리아 전파능력 확인됨
전파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룩날개모기 속(<i>genus Anopheles</i>)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사람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일열말라리아 : 단기잠복기(7~20일), 장기잠복기(6~12개월) 열대열말라리아 : 9~4일, 사일열 원충 : 18~40일, 난형열 원충 : 12~18일, 원숭이열 원충 : 11~12일
임상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서히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 증상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경우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중증 환자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섬망·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발생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
치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 중증말라리아(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 경우 성인 20%, 소아 10% 사망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미 경 검 사 : 혈액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유전자검출검사 : 검체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진단키트 : 검체에서 특이항원 검출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라리아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해외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및 접촉자 격리 : 필요 없음 혈액격리 필요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모기기피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모기노출 방지) 방충망, 모기장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주로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자제(예방적 화학요법) 클로로퀸 감수성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클로로퀸 내성 지역 여행 시: 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메플로퀸 내성 지역 여행 시: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여행 1-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